

비전형적 증상을 보여 진단이 지연된 기종성 신우신염 1예

창원 파티마병원 내과

김민재 · 최영 · 윤건중 · 박기룡

A Case of Emphysematous Pyelonephritis Delayed Diagnosed due to Atypical Symptoms

Min Jae Kim, Young Choi, Gun Jung Youn, Kiryong Park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hangwon Fatima Hospital

기종성 신우신염은 콩팥 실질과 상부요로, 콩팥 주위 조직에 공기 형성을 동반하는 급성 감염으로 드물게 발생하지만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질환이다. 대부분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하고 패혈증과 급성 신손상 등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고 수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내과적 치료와 경피적 신루 설치술 혹은 배농술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

47세 여자 환자로 7년 전 당뇨,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던 분으로 3주 전부터 식사량 감소, 미열, 왼쪽 복통, 설사가 있어서 개인의원에서 급성 위장염 의심 하에 대증 치료 받았으나 증상 호전 없어서 본원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급성 병색을 보였으며 혈압은 120/80 mmHg, 맥박은 80회/분, 호흡수는 20회/분, 체온은 36.6°C였다. 일반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27,250/mm³, 혈색소 12.6 gm/dL, 혈소판 558,000/mm³ 였으며, 일반 화학 검사에서 BUN/Cr 30/1.4 mg/dL, Na/K 127/6.4 mEq/L, glucose 1,067 mg/dL, CRP 40.6 mg/dL, HbA1C 10.7% 였다.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pH 7.251, pCO₂ 32 mmHg, pO₂ 97.9 mmHg, HCO₃⁻ 17.4 mEq/L 였다. 소변 검사에서 blood (-), ketone (3+), glucose (3+), protein (-), RBC 0-2/HPF, WBC 0-5/HPF 였다.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공기 액체 층을 동반한 광범위한 콩팥 주위 농양과 콩팥 실질에 국소적인 염증 병변이 관찰되었다. 신장 아래 복강 내 복수와 왼쪽 폐 기저부의 무기폐와 흉수 저류 소견이 관찰되었다. 고혈당과 케톤 산증의 치료를 위하여 속효성 인슐린 점적 주입과 수액 공급을 하였으며, 10F 도관으로 경피적 배농술을 시행하였다. 도관 설치 후 첫 날 180 cc의 혼탁한 고름이 배액 되었으며 이튿 날은 130 cc가 배액 되었고 이후 점차 배액 양이 감소하였다. 7일째 시행한 비조영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공기 액체 층을 동반한 콩팥 주위 농양의 대부분이 소실 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14일째 배액이 없음을 확인 후 도관을 제거하였다. 배농 액에서 ESBL음성 E. coli와 K. pneumoniae가 배양되었고 입원 초기 부터 ciprofloxacin을 15일 간 사용하였으며 환자는 복통 등의 증상이 소실되어 퇴원하였으며 외래에서 당뇨와 고혈압 치료를 시행하며 경과 관찰 중이다.

식사량 감소, 복통, 설사 등 비전형적인 증상을 동반하여 진단이 지연된 기종성 신우신염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Key Words: 기종성, 신우신염, 비전형

Emphysematous, Pyelonephritis, Atypical